

‘메타버스’ 서 만나는 나주 혁신도시

한전·aT, 메타버스 공간에 나주 본사 구현… ‘캡코 월드’ 등 운영 한전KDN 등 전력그룹사 22일 ‘메타버스와 에너지 산업 기회’ 포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사회·경제적 활동 반경을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로 확대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나주 본사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구현하는가 하면, 기존 사업과 메타버스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전KDN은 전력그룹사, 에너지 기관·기업들과 오는 22일 ‘에너지ICT 리더십 포럼’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한전KDN 나주 본사 빛가람 홀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참가할 수 있다.

한전KDN이 처음으로 주관해 진행되는 포럼 주제는 ‘메타버스로 여는 에너지ICT 세상’이다.

한전KDN 등 전력그룹사는 신기술 메타버스와

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탄소중립을 이룰 미래 기술을 고안해 낼 생각이다.

이날 김상운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와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강단에 선다.

정준홍 한전KDN 부장(공학박사)도 ‘전력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강연에 나선다.

행사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관련 홈페이지(kdn.com/kdnconference)에서 할 수 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되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및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에너지ICT 공기업을으로서 한전KDN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전력

그룹사 및 협력사와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KEPCO)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아예 메타버스 공간에 나주 본사를 옮겨놨다.

한전은 나주 본사 내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캡코 월드’(KEPCO World)을 지난달 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마련했다.

이달 중순까지 3500명이 넘는 국내외 이용객이 메타버스 한전 본사를 다녀갔다. 방문객들은 나주 본사를 배경으로 한 인증 사진 등을 남기며 소감을 남기고 있다.

유복현 한전 ICT 기획처 차장은 “나주 혁신도시에 오지 못하는 이들도 한전 나주 본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메타버스 구현을 시도했다”며 “광주에서 열려 지난 12일 막을 내린 ‘빅스포 2021’을 체험하기 위한 메타버스 공간도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농수산 식품산업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며 소통 공간

을 넓혔다.

공사는 지난 8일 디지털 플랫폼 ‘메타 aT’(metat.kr)를 시범적으로 론칭했다.

이는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농수산 유통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부문의 ‘aT 스튜디오’ 등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메타 aT’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aT 나주 본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안에 마련된 가상 상설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농수산 관련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설전시관과 함께 ▲aT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 SNS 홍보 채널 ▲라이브 커머스(생방송 판매)관 ▲K-푸드 홍보관 ▲전통주 갤러리 ▲청년기용식당 등 홍보관도 마련됐다. ESG경영 실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확산을 위한 홍보물도 만날 수 있다.

공사는 연말까지 ‘메타 aT’를 시범 운영하며 고객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후 각종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안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행사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광주·전남 기관·단체 28곳이 참여한 ‘7회 빛가람 정립문화제’ 개막식은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펼쳐졌다.

각 기관 담당자가 자신을 상징하는 ‘아바타’로 참여하고, 3D 활용 개막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내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지난달 14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수진 연구실을 방문하는 ‘오픈랩’ 행사를 열었다.

국내 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간 원활한 소규모 회의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날 행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더타운’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 마련된 교수진 연구실을 찾아 연구 주제를 확인하고 교수들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흥댐 정상부 개방 16일 열린 ‘장흥다목적댐 정상부 개방’ 행사에서 정중순 장흥군수와 양진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나봉길 전남서남권지사장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장흥댐은 물문화관부터 여수로 인근까지 왕복 800m 개방되며, 오는 2월까지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할 수 있다.

사학연금, 교직원·연금수급자 ‘전용 복지몰’ 구축

현대이지웰과 2년 협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43만 재직교직원과 연금수급자를 위한 전용 복지몰을 만들기 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학연금은 지난 15일 나주 본사에서 (주)현대이지웰과 ‘TP 복지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2년간 유지된다.

복지몰 운영은 교직원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연금은 현대이지웰과 전용 복지몰을 구축한 뒤 다양한 상품을 최저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전용 복지몰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의

제휴복지 서비스에 탑재된다.

복지몰이 구축되면 이용실적과 연동해 포인트를 주는 등 고객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경태 사학연금 연금사업본부장은 “이용 가능한 제휴복지 업체 확대와 소핑 지원으로 고객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제휴 업체와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빅스포 2021’ 성료… 2900만 달러 수출계약



251개사 참여…탄소중립 미래기술 선보여
일자리박람회 1800명 상담·면접 진행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대면 행사를 벌인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빅스포 2021)이 사흘 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빅스포 2021 행사 방문객은 1만4287명이며, 온라인 플랫폼 접속은 11만3201회로 집계됐다.

빅스포 2021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진행됐다.

한전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뒤 올해 7번째 빅스포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탄소중립’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국내외의 251개사가 참여해 탄소중립 미래기술을 선보였다.

LS전선은 해상풍력 해저케이블(초고압직류송전)과 HVDC(고압직류송전) 케이블을 내놓았고, 효성중공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스태콤(STACOM) 기술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온라인 상담과 병행한 수출상담에서는 352건(1조5400만 달러) 상당 상담실적을 올렸다. 행사 기간 동안 10건(29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에너지밸리 기업 30개사 참가한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에서는 1800명이 넘는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다.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는 총 92명의 발명가들이, 스타트업 투자경진대회에서는 총 3개사가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빅스포 어워드’에는 200여 명이 참가했다.



한전 인공지능(AI) 로봇개 ‘스팟’.

국내의 전문가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에너지 리더스 서밋’ 등 72개 국제 컨퍼런스가 이 기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탄소중립 시대 수소에너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한전 관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만4000명의 국내외 관객이 광주에 머물며 숙박·식사·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며 “빅스포 2021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열린 첫 박람회로, 탄소중립 신기술을 선보이는 교류와 소통의 무대였다”고 말했다.

행사 종료 후 홈페이지(bixpo.kr)에서 관련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